



반드시 반복되는 수능 국어 기출의 논리

수능 국어 학습의 출발, 홀수 기출 분석 시리즈

박광일 선생님이 강조하는 올바른 수능 국어 기출 분석법을
홀수 기출 분석 시리즈에 모두 담았습니다.

우리가 기출을 분석해야만 하는 이유

- 1 기출 분석은 수능 국어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 줍니다.
- 2 기출 분석은 수능 국어에서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 3 기출 분석은 수능 국어에서 출제자가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합니다.
- 4 기출 분석은 수능 국어 문제의 유형과 물어보는 방식을 이해하게 하고 정답을 도출하는 올바른 사고방식을 길러 줍니다.
- 5 기출 분석은 문제를 틀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게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수능 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출 분석은 단순히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히는 과정이 아니라,
영역별로 지문의 구조와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정답과 오답을 결정하는
정확한 근거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

단계별 학습을 통해 수능 국어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요소를 파악하고, 어떻게 근거를 찾아 정답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1 단계 / 8주 완성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



- 최신 6개년 평가원 기출 공통 과목의 전 문항을 영역별로 수록하여, 수능 국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지문별 CHECK POINT와 문제 유형 분석을 통해 지문과 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익히고,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방식을 체화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적 문제', '모두의 질문' 등과 함께 자세하고 친절한 해설을 제시하여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단계 / 5주 완성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상) 학력평가



- 최신 7개년 학력평가에서 수능 출제 경향에 부합하는 기출을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 'PART 1 문학'은 수능 빈출 작가의 낯선 작품과 문제를 통해, 수능에서 어떤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PART 2 독서'는 수능 빈출 개념을 상세하게 다룬 지문과 문제를 통해, 고난도 독서를 대비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3 단계 + N / 8주 완성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문학 / 독서] ⊗ 홀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



- 최신 평가원 출제 경향에 부합하는 고난도 평가원 기출을 선별하여 더욱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출 분석 1~2단계를 거치며 체화한 지문 분석, 문제 풀이 방법을 적용하여 훈련함으로써 수능 국어 고득점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 최신 6개년 평가원 기출 공통 과목을 평가원 모의고사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 OMR 카드를 활용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문제를 풀고 난 후 약점 CHECK 분석표를 작성하여 나의 취약점을 진단함으로써 수능 국어 고득점을 위한 올바른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단계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 학습 (8주 완성)



홀수 공부법 TIP

- ☑ **1단계에서는** 총 2권의 책을 학습합니다. 기출 분석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모든 지문마다 '지문 분석 빈칸 채우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빈칸을 채우며 지문 독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문의 구조와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 후 해설 책을 볼 때에는 정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 분석 내용과 자신의 독해 과정을 비교해 보고, 다양한 학습 장치를 참고하여 선지의 정·오답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때 핵심은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정확한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 ☑ **1~2일차에는** 2026학년도 수능 문제를 풀고 해설 책에 수록된 '박광일의 CHECK POINT'를 참고하여 최신 수능 국어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문제 풀이를 점검합니다.
- ☑ **3일차부터는** 각 영역별 [기본] → [심화] 순으로 기출 분석을 합니다.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에서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본]과 [심화]를 각 지문의 상단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기출 분석을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는 [기본] 지문을 학습한 후 [심화] 지문을 학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기출 문제는 수능 때까지 반복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학습자마다 시기별 학습 순서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원하는 지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책에서는 최신 6개월 기출을 연도순으로 배치했습니다.

| 학습 주차 |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독서] |
|-------|-----------------------------------------------------------------------|------------------------------------------------|
| 1주차 | INTRO 수능 4 SET 기본 PART 1 현대시 6 SET 기본 | INTRO 수능 4 SET 기본 + 심화 PART 1 독서론 6 SET 기본 |
| 2주차 | PART 1 현대시 4 SET 심화 PART 2 고전시가 5 SET 기본 PART 2 고전시가 1 SET 심화 | PART 1 독서론 8 SET 기본 PART 2 인문·사회 2 SET 기본 |
| 3주차 | PART 2 고전시가 3 SET 심화 PART 3 현대소설 7 SET 기본 | PART 2 인문·사회 6 SET 기본 PART 2 인문·사회 4 SET 심화 |
| 4주차 | PART 3 현대소설 3 SET 기본 PART 3 현대소설 6 SET 심화 PART 4 고전산문 1 SET 기본 | PART 2 인문·사회 5 SET 심화 PART 3 과학·기술 5 SET 기본 |
| 5주차 | PART 4 고전산문 10 SET 기본 | PART 3 과학·기술 3 SET 기본 PART 3 과학·기술 7 SET 심화 |
| 6주차 | PART 4 고전산문 2 SET 기본 PART 4 고전산문 3 SET 심화 PART 5 갈래 복합 5 SET 기본 | PART 3 과학·기술 2 SET 심화 PART 4 주제 복합 5 SET 기본 |
| 7주차 | PART 5 갈래 복합 3 SET 기본 PART 5 갈래 복합 4 SET 심화 | PART 4 주제 복합 5 SET 기본 PART 4 주제 복합 2 SET 심화 |
| 8주차 | PART 5 갈래 복합 5 SET 심화 | PART 4 주제 복합 5 SET 심화 |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상) 학력평가 학습 (5주 완성)

2 단계

홀수 공부법 TIP

☑ **2단계에서는** 문제 책의 각 지문마다 '평가원 연계 POINT'를 수록하여 학력평가 기출에서 발견한 평가원 기출의 학습 요소를 소개하고, 이와 함께 풀어 보면 좋을 평가원 기출을 안내하였습니다.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에서 해당 기출 지문을 찾아 오늘 풀어 본 문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며 복습합니다.

☑ **매일매일** 1단계에서 학습한 지문 분석법과 문제 풀이법을 떠올리며 문학과 독서를 한 세트씩 풀고, 해설 책을 참고하여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가 찾은 근거와 해설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 학습 주차 | PART 1 [문학] | PART 2 [독서] |
|-------|-------------------------------------------------------------|------------------------------|
| 1주차 | CHAPTER 1 현대시 5 SET | CHAPTER 1 인문 5 SET |
| 2주차 | CHAPTER 2 고전시가 4 SET CHAPTER 3 현대소설 1 SET | CHAPTER 2 사회 5 SET |
| 3주차 | CHAPTER 3 현대소설 4 SET CHAPTER 4 고전산문 1 SET | CHAPTER 3 과학 5 SET |
| 4주차 | CHAPTER 4 고전산문 4 SET CHAPTER 5 갈래 복합 1 SET | CHAPTER 4 기술 5 SET |
| 5주차 | CHAPTER 5 갈래 복합 5 SET | CHAPTER 5 주제 복합 5 SET |

*해당 교재에는 세부 계획표가 제공됩니다.

이 책은 3단계 계획표를 활용하여 학습하세요!

3 단계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문학 / 독서] & 홀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 학습 (8주 완성)

홀수 공부법 TIP

☑ 3단계에서는 총 3권의 책을 학습합니다. 먼저 1~2단계에서 학습한 지문 분석법과 문제 풀이법을 떠올리며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문학 / 독서]』에서 각각 한 세트씩 풀고 해설 책을 참고하여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가 찾은 근거와 해설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 홀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는 ❶ 실천처럼 제한 시간을 두고 문제를 풀어 봅니다. ❷ 채점을 한 후 '약점 CHECK 분석표'를 작성하여 영역별, 문제 유형별로 나의 취약점을 진단합니다.



| 학습 주차 |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문학] | 문제 책 페이지 |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독서] | 문제 책 페이지 | 홀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 | 페이지 | 학습 체크 | |
|-------|---------------------------|-----------------|---------------------------|--------------------|--------------------|-----|-------|--------------------------|
| 1 주차 | 1일차 (월 일) | PART 1 _ 현대시 ① | P.014 | PART 1 _ 인문 · 예술 ① | P.014 | | | <input type="checkbox"/> |
| | 2일차 (월 일) | PART 1 _ 현대시 ② | P.016 | PART 1 _ 인문 · 예술 ② | P.016 | | | <input type="checkbox"/> |
| | 3일차 (월 일) | PART 1 _ 현대시 ③ | P.018 | PART 1 _ 인문 · 예술 ③ | P.020 | | | <input type="checkbox"/> |
| | 4일차 (월 일) | PART 1 _ 현대시 ④ | P.020 | PART 1 _ 인문 · 예술 ④ | P.022 | | | <input type="checkbox"/> |
| | 5일차 (월 일) | PART 1 _ 현대시 ⑤ | P.022 | PART 1 _ 인문 · 예술 ⑤ | P.024 | | | <input type="checkbox"/> |
| | 6일차 (월 일) | | | | | 1회차 | P.011 | <input type="checkbox"/> |
| | 7일차 (월 일) | | | | | 2회차 | P.023 | <input type="checkbox"/> |
| 2 주차 | 1일차 (월 일) | PART 1 _ 현대시 ⑥ | P.024 | PART 1 _ 인문 · 예술 ⑥ | P.026 | | | <input type="checkbox"/> |
| | 2일차 (월 일) | PART 2 _ 고전시가 ① | P.028 | PART 1 _ 인문 · 예술 ⑦ | P.028 | | | <input type="checkbox"/> |
| | 3일차 (월 일) | PART 2 _ 고전시가 ② | P.030 | PART 1 _ 인문 · 예술 ⑧ | P.030 | | | <input type="checkbox"/> |
| | 4일차 (월 일) | PART 2 _ 고전시가 ③ | P.032 | PART 1 _ 인문 · 예술 ⑨ | P.032 | | | <input type="checkbox"/> |
| | 5일차 (월 일) | PART 2 _ 고전시가 ④ | P.034 | PART 2 _ 사회 ① | P.036 | | | <input type="checkbox"/> |
| | 6일차 (월 일) | | | | | 3회차 | P.035 | <input type="checkbox"/> |
| | 7일차 (월 일) | | | | | 4회차 | P.047 | <input type="checkbox"/> |
| 3 주차 | 1일차 (월 일) | PART 3 _ 현대소설 ① | P.038 | PART 2 _ 사회 ② | P.038 | | | <input type="checkbox"/> |
| | 2일차 (월 일) | PART 3 _ 현대소설 ② | P.040 | PART 2 _ 사회 ③ | P.040 | | | <input type="checkbox"/> |
| | 3일차 (월 일) | PART 3 _ 현대소설 ③ | P.044 | PART 2 _ 사회 ④ | P.042 | | | <input type="checkbox"/> |
| | 4일차 (월 일) | PART 3 _ 현대소설 ④ | P.048 | PART 2 _ 사회 ⑤ | P.046 | | | <input type="checkbox"/> |
| | 5일차 (월 일) | PART 3 _ 현대소설 ⑤ | P.050 | PART 2 _ 사회 ⑥ | P.048 | | | <input type="checkbox"/> |
| | 6일차 (월 일) | | | | | 5회차 | P.059 | <input type="checkbox"/> |
| | 7일차 (월 일) | | | | | 6회차 | P.071 | <input type="checkbox"/> |
| 4 주차 | 1일차 (월 일) | PART 3 _ 현대소설 ⑥ | P.052 | PART 2 _ 사회 ⑦ | P.052 | | | <input type="checkbox"/> |
| | 2일차 (월 일) | PART 3 _ 현대소설 ⑦ | P.054 | PART 2 _ 사회 ⑧ | P.054 | | | <input type="checkbox"/> |
| | 3일차 (월 일) | PART 3 _ 현대소설 ⑧ | P.056 | PART 3 _ 과학 ① | P.058 | | | <input type="checkbox"/> |
| | 4일차 (월 일) | PART 3 _ 현대소설 ⑨ | P.058 | PART 3 _ 과학 ② | P.062 | | | <input type="checkbox"/> |
| | 5일차 (월 일) | PART 3 _ 현대소설 ⑩ | P.060 | PART 3 _ 과학 ③ | P.064 | | | <input type="checkbox"/> |
| | 6일차 (월 일) | | | | | 7회차 | P.083 | <input type="checkbox"/> |
| | 7일차 (월 일) | | | | | 8회차 | P.095 | <input type="checkbox"/> |

| 학습 주차 | 출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문학] | 문제 책 페이지 | 출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독서] | 문제 책 페이지 | 출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 | 페이지 | 학습 체크 | |
|---------|---------------------------------|------------------------------------|---------------------------------|--------------------------------|--------------------------|------|--------------------------|--------------------------|
| 5 주차 | 1일차 (월 일) | PART 3 _ 현대소설 ⑩ | P.062 | PART 3 _ 과학 ④ | P.066 | | <input type="checkbox"/> | |
| | 2일차 (월 일) | PART 4 _ 고전산문 ① | P.066 | PART 3 _ 과학 ⑤ | P.068 | | <input type="checkbox"/> | |
| | 3일차 (월 일) | PART 4 _ 고전산문 ② | P.070 | PART 3 _ 과학 ⑥ PART 3 _ 과학 ⑦ | P.070 P.072 | | <input type="checkbox"/> | |
| | 4일차 (월 일) | PART 4 _ 고전산문 ③ PART 4 _ 고전산문 ④ | P.072 P.074 | PART 3 _ 과학 ⑧ | P.074 | | <input type="checkbox"/> | |
| | 5일차 (월 일) | | | | | 9회차 | P.107 | <input type="checkbox"/> |
| | 6일차 (월 일) | | | | | 10회차 | P.119 | <input type="checkbox"/> |
| | 7일차 (월 일) | | | | | 11회차 | P.131 | <input type="checkbox"/> |
| 6 주차 | 1일차 (월 일) | PART 4 _ 고전산문 ⑤ | P.076 | PART 3 _ 과학 ⑨ PART 3 _ 과학 ⑩ | P.076 P.078 | | <input type="checkbox"/> | |
| | 2일차 (월 일) | PART 4 _ 고전산문 ⑥ PART 4 _ 고전산문 ⑦ | P.078 P.082 | PART 3 _ 과학 ⑪ | P.080 | | <input type="checkbox"/> | |
| | 3일차 (월 일) | PART 5 _ 갈래 복합 ① | P.086 | PART 4 _ 기술 ① | P.084 | | <input type="checkbox"/> | |
| | 4일차 (월 일) | PART 5 _ 갈래 복합 ② | P.090 | PART 4 _ 기술 ② | P.086 | | <input type="checkbox"/> | |
| | 5일차 (월 일) | | | | | 12회차 | P.143 | <input type="checkbox"/> |
| | 6일차 (월 일) | | | | | 13회차 | P.155 | <input type="checkbox"/> |
| | 7일차 (월 일) | | | | | 14회차 | P.167 | <input type="checkbox"/> |
| 7 주차 | 1일차 (월 일) | PART 5 _ 갈래 복합 ③ | P.094 | PART 4 _ 기술 ③ | P.088 | | <input type="checkbox"/> | |
| | 2일차 (월 일) | PART 5 _ 갈래 복합 ④ | P.096 | PART 4 _ 기술 ④ | P.090 | | <input type="checkbox"/> | |
| | 3일차 (월 일) | PART 5 _ 갈래 복합 ⑤ | P.098 | PART 4 _ 기술 ⑤ | P.094 | | <input type="checkbox"/> | |
| | 4일차 (월 일) | PART 5 _ 갈래 복합 ⑥ | P.100 | PART 4 _ 기술 ⑥ | P.096 | | <input type="checkbox"/> | |
| | 5일차 (월 일) | PART 5 _ 갈래 복합 ⑦ | P.102 | PART 4 _ 기술 ⑦ | P.098 | | <input type="checkbox"/> | |
| | 6일차 (월 일) | | | | | 15회차 | P.179 | <input type="checkbox"/> |
| | 7일차 (월 일) | | | | | 16회차 | P.191 | <input type="checkbox"/> |
| 8 주차 | 1일차 (월 일) | PART 5 _ 갈래 복합 ⑧ | P.104 | PART 4 _ 기술 ⑧ | P.100 | | <input type="checkbox"/> | |
| | 2일차 (월 일) | PART 5 _ 갈래 복합 ⑨ | P.106 | PART 4 _ 기술 ⑨ | P.102 | | <input type="checkbox"/> | |
| | 3일차 (월 일) | PART 6 _ 극 ① | P.110 | PART 5 _ 주제 복합 ① | P.106 | | <input type="checkbox"/> | |
| | 4일차 (월 일) | PART 6 _ 극 ② | P.112 | PART 5 _ 주제 복합 ② | P.110 | | <input type="checkbox"/> | |
| | 5일차 (월 일) | PART 6 _ 극 ③ | P.114 | PART 5 _ 주제 복합 ③ | P.114 | | <input type="checkbox"/> | |
| | 6일차 (월 일) | | | | | 17회차 | P.203 | <input type="checkbox"/> |
| | 7일차 (월 일) | | | | | 18회차 | P.215 | <input type="checkbox"/> |

출수 기출 분석 시리즈 6개월 학습 PLAN을 마친 후에는
 수능 때까지 '출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 위주로 반복 학습하되,
 '출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 파악한 나의 취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 첫째** 2009학년도~2020학년도 평가원 기출 문학 영역에서 박광일 선생님이 엄선한 꼭 풀어 보아야 할 기출을 수록했습니다.
- 둘째**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문제 책과 해설 책으로 분권하였으며, 해설 책에도 문제를 재수록하여 문제와 해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문제 책



박광일 선생님이 엄선한 고난도 기출 수록

엄선된 고난도 지문을 갈래별로 분류하여 전 문항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한 세트를 5~6분 안에 풀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박광일의 VIEW POINT

박광일 선생님이 해당 기출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평가원의 최신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출제 요소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학습 방향을 제시합니다.

박광일의 VIEW POINT

고향을 소재로 창작된 두 작품을 엮어서 출제하였다. 고향처럼 하기 쉬운데, 수능과 모의평가에 출제된 작품에서 화자는 독유하며 작품을 분석해야 한다.

해설 책

| | |
|------------|-----------------------------------------------------------------------------------------------------------------------------------------|
| 화자와 대상의 관계 |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경치를 즐기며 세월이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우리 |
| 상황? | 풀이 자라고 복숭아꽃이 피는 봄의 경치를 즐김 → 꽃이 지고 녹음이 깊어 가는 여름의 경치를 즐김 → 가을이 되어 익은 송과 인주를 즐기려 함 → 겨울의 눈 내린 풍경을 즐김 → 새해가 되자 세월이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함 |

운문 작품 분석

운문 갈래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작품 속 화자와 대상, 상황을 제시하여 문제 풀이를 위한 효율적인 작품 분석법을 안내합니다.

고전시가 현대어 풀이

고전시가 원문 옆에 현대어 풀이를 배치하여 작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어 풀이

별이 잘 드는 언덕에 풀이 기니 불빛이 늦게까지 비친다
작은 정원의 복숭아꽃은 밤비에 다 피었구나
아이야 소 잘 먹어 논과 밭을 갈게 하여라 <제2수>

자라가 기막혀 우는 말이,
“㉠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인가, 나의 정성 부족인가? 객사 신세 자라 팔자, 이 아니 불쌍한가? 명천*이 감동하와 백호를 죽여 주오, 애고애고 설운지고.” 용왕께 드릴 악을 구하지 못하고 죽게 될 상황이 서러운 자라
이렇듯이 슬피 우니 호랑이 듣더니,

산문 작품 분석

산문 갈래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인물의 심리, 장면별 주요 내용을 해설하여 문제 풀이를 위한 효율적인 작품 분석법을 안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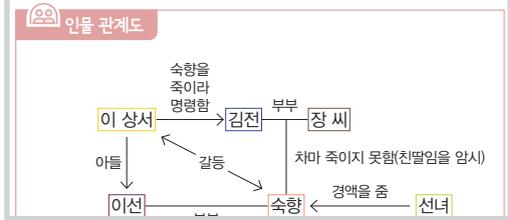
셋째 모든 문항의 정·오답에 대한 근거와 해설을 친절하게 제시하여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 책의 마지막 장에서 **빠른 정답 찾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항별로 제시된 문제의 유형과 정답률을 통해 나의 약점 유형을 진단하고 체감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설 책

전체 줄거리

남해 용왕이 술과 여자를 지나치게 가까이 한 탓으로 병이 났는데, 의원이 용왕의 병에는 토끼의 간(호르몬)이 있다고 말한다. 이에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용지로 가게 된다. 자라는 독수공박을 할 생각에



전체 줄거리 & 인물 관계도

‘전체 줄거리’를 통해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인물 관계도’를 통해 주요 인물 간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만은 챙기자 & 기틀잡기

‘이것만은 챙기자’에서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를 풀이하여 어휘력을 기르고, ‘기틀잡기’에서는 문학 개념어 풀이를 통해 표현상,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만은 챙기자

- 명찬: 모든 것을 똑똑히 살피는 하느님.
- 파연: 잔치를 끝냄.
- 배설: 연회나 의식(儀式)에 쓰는 물건을 차려 놓음.

기틀잡기

- ① 대구: 비슷한 어조나 구조를 가진 구절이나 문장 두 개를 짝지어 배치하는 표현 기법.
- ⑤ 편집자적 논평: 작품 밖 서술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어 작품 속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직접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

모두의 질문 • 3-④번

Q: ㉞는 ‘자기 경험이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 경험’이 소설이 죽은 이 승상을 만난 것을 말하고, 그 경험은 판술에서 이리시절이면, 승상은 신(神) 밑에서 깨어나는

문제적 문제 • 2-③, ⑥번

학생들이 정답 이외에 가장 많이 고른 선지가 ㉞번이다. 매우 지엽적인 부분에서 정·오답을 판별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선지들의 경우 해당 선지와 관련된 구절뿐만 아니라 그 앞뒤 구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우선 정답인 ㉞번의 경우, 뒷글에서 홍계월은 집에서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고, 천자는 홍계월을 오랫동안 보지 못

모두의 질문 & 문제적 문제

온라인 강의와 현장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한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심화 분석하여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답을 고르는 방법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평가원의 관점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에 대한 평가원의 답변을 모두 수록하여 평가원의 관점과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가원의 관점

이의 제기

㉞에서 인물(숙향)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㉞번이 적절하지 않나요?

답변

㉞의 ‘연약한 몸이 큰칼 쓰고 여러 사람에게 불들려 가늠’는 숙향이 처한 상황을 서술한 것이지 숙향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㉞의 ‘바운 죽은 사람이라’는 서술자가 인물의 상태에 대해서 논평한 것으로

| 현대시 | | 기출 연도 | 문제 책 | 해설 책 |
|-----------|----------------------------------------------------------------|-------------|-------|-------|
| PART 1 | ① 오장환, 「고향 앞에서」 / 최두석, 「낮은 집」 | 2015학년도 수능B | P.014 | P.006 |
| | ② 유치환, 「생명의 서 · 일장」 / 신경림, 「농무」 | 2014학년도 9평B | P.016 | P.010 |
| | ③ 김수영, 「폭포」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순례 11」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초설」 | 2013학년도 수능 | P.018 | P.014 |
| | ④ 윤동주, 「또 다른 고향」 / 오세영, 「자화상 · 2」 / 김기택, 「멀치」 | 2013학년도 9평 | P.020 | P.018 |
| | ⑤ 박남수, 「새 1」 / 정일근, 「어머니의 그늘」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2012학년도 9평 | P.022 | P.023 |
| | ⑥ 백석, 「여승」 / 나희덕, 「못 위의 잠」 /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 2009학년도 6평 | P.024 | P.027 |

| 고전시가 | | 기출 연도 | 문제 책 | 해설 책 |
|-----------|----------------|-------------|-------|-------|
| PART 2 | ① 홍순학, 「연행가」 | 2017학년도 수능 | P.028 | P.034 |
| | ② 신계영, 「전원사시가」 | 2016학년도 9평B | P.030 | P.037 |
| | ③ 박인로, 「상사곡」 | 2015학년도 수능A | P.032 | P.041 |
| | ④ 조위, 「만분가」 | 2015학년도 9평B | P.034 | P.045 |

| 현대소설 | | 기출 연도 | 문제 책 | 해설 책 |
|-----------|------------------|--------------|-------|-------|
| PART 3 | ① 오정희, 「옛우물」 | 2016학년도 9평B | P.038 | P.052 |
| | ② 현진건, 「무영탑」 | 2015학년도 수능AB | P.040 | P.056 |
| | ③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2015학년도 6평AB | P.044 | P.063 |
| | ④ 이청준, 「소문의 벽」 | 2014학년도 수능B | P.048 | P.068 |
| | ⑤ 염상섭, 「만세전」 | 2014학년도 6평B | P.050 | P.072 |
| | ⑥ 박태원, 「천변풍경」 | 2013학년도 수능 | P.052 | P.076 |
| | ⑦ 황석영, 「가객」 | 2013학년도 6평 | P.054 | P.080 |
| | ⑧ 김원일, 「잠시 눕는 풀」 | 2011학년도 9평 | P.056 | P.085 |
| | ⑨ 이청준, 「잔인한 도시」 | 2010학년도 9평 | P.058 | P.089 |
| | ⑩ 김승옥, 「역사」 | 2009학년도 수능 | P.060 | P.094 |
| | ⑪ 오상원, 「모반」 | 2009학년도 9평 | P.062 | P.098 |

| 고전산문 | | 기출 연도 | 문제 책 | 해설 책 |
|-----------|-----------------|--------------|-------|-------|
| PART 4 | ① 작자 미상, 「조웅전」 | 2020학년도 6평 | P.066 | P.106 |
| | ② 작자 미상, 「토끼전」 | 2016학년도 수능AB | P.070 | P.112 |
| | ③ 작자 미상, 「홍계월전」 | 2016학년도 6평A | P.072 | P.116 |
| | ④ 작자 미상, 「소대성전」 | 2015학년도 수능A | P.074 | P.121 |
| | ⑤ 작자 미상, 「숙향전」 | 2015학년도 수능B | P.076 | P.126 |
| | ⑥ 작자 미상, 「유충렬전」 | 2015학년도 9평AB | P.078 | P.131 |
| | ⑦ 남영로, 「옥루몽」 | 2014학년도 수능B | P.082 | P.136 |

| 갈래 복합 | | 기출 연도 | 문제 책 | 해설 책 |
|-----------|-----------------------------------------------------|-------------|-------|-------|
| PART 5 | ① 박봉우, 「휴전선」 / 배한봉, 「우포늪 왓새」 / 김기림, 「주을온천행」 | 2019학년도 6평 | P.086 | P.144 |
| | ② 작자 미상, 「춘향전」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 2018학년도 9평 | P.090 | P.150 |
| | ③ 김승옥, 「무진기행」 / 김승옥, 「안개」 | 2015학년도 9평A | P.094 | P.157 |
| | ④ 박인로, 「누항사」 / 권구, 「병산육곡」 / 김용준, 「조어삼매」 | 2013학년도 9평 | P.096 | P.161 |
| | ⑤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장석남, 「배를 매며」 / 정철, 「사미인곡」 | 2013학년도 6평 | P.098 | P.166 |
| | ⑥ 박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 이광명, 「북찬가」 | 2012학년도 수능 | P.100 | P.173 |
| | ⑦ 이용휴, 「수려기」 / 작자 미상, 「덴동어미화전가」 / 이항, 「도산십이곡」 | 2012학년도 9평 | P.102 | P.179 |
| | ⑧ 김동명, 「파초」 / 김광균, 「수철리」 / 윤선도, 「견회요」 | 2012학년도 6평 | P.104 | P.184 |
| | ⑨ 정극인, 「상춘곡」 / 김광욱, 「율리유곡」 / 박규수, 「범희문화서도원림」 | 2011학년도 수능 | P.106 | P.190 |

| 극 | | 기출 연도 | 문제 책 | 해설 책 |
|-----------|---------------|--------------|-------|-------|
| PART 6 | ① 이근삼, 「원고지」 | 2014학년도 9평AB | P.110 | P.198 |
| | ② 함세덕, 「산허구리」 | 2012학년도 수능 | P.112 | P.201 |
| | ③ 이강백, 「파수꾼」 | 2009학년도 9평 | P.114 | P.205 |

PART 5



갈래 복합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짙짙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
에 있었는가.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어.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꺾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
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박봉우, 「휴전선」 -

(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왁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보름 위아 자운영 꽃밭 질러 놓는다 [A]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B]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커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는가 [C]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D]

저 왁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났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E]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 배한봉, 「우포늪 왁새」 -

*왁새: 왜가리의 별명.

*동편제: 판소리의 한 유파.

(다)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심암(吾心岩)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한다. 그보다도 조금 겸손한 누구는 세심암
(洗心岩)이라고 불렀다 한다.

기운차게 일어선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오심암의 절경을 남기
기 위하여 한 등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다물어졌다.

질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盛裝), 그
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러고 간 형
깊은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비낀 백옥보다도 흰 얽은 구름 조각.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러 놓은 예술의 극치다. 그러나 겸손
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紅塵)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어귀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 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게다.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
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
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잠깐 내 자
신을 굽어보니 허영계 먼지 낀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내
몸뚱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얽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탓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
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중략)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
개치고 반듯이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
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가)는 분단의 비극, (나)는 소리꾼의 예술적 경지, (다)는 세속적 삶에 대한 반성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나)는 4번의 <보기>에 제시된 작품 해석의 단서 없이는 수험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었다. 그러나 <보기>와 (나)를 적절하게 연결 짓기만 해도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었으므로, 외적 준거를 활용한 문제 풀이 훈련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심암을 두 번 세 번 돌아다보면서 간 길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좋은 벗 떠나기란 싫은 것처럼, 좋은 자연에도 석별의 정은 마찬가지로 보다. 또한 좋은 음식을 만났을 때 벗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앞에 두고는 멀리 있는 벗들이 갑자기 그리웁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오심암에게 무언(無言)의 약속을 주어 버렸다.

‘내년에는 벗을 데리고 또 찾아오마’고.

- 김기림, 「주울온천행」 -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 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3.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희’를 이겨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 ⑤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회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왓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 ① [A]: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② [B]: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C]: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⑤ [E]: 날아가는 왓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5.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고,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며,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지요.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학생 1: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학생 2: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

학생 3: '오심암'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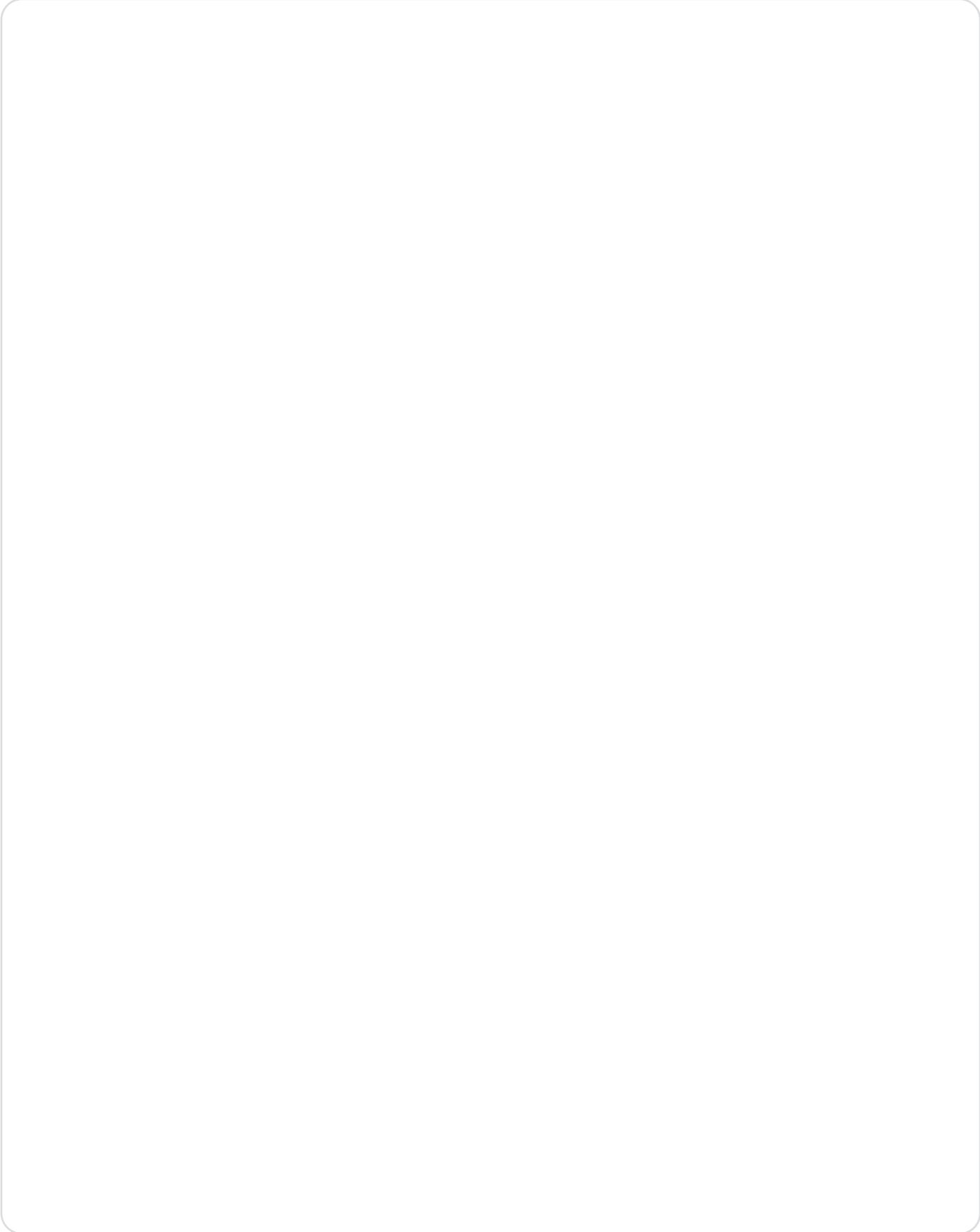
학생 4: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학생 5: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 ① ㉠ ② ㉡ ③ ㉢ ④ ㉣ ⑤ ㉤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student notes.

MEMO



PART 2



고전시가

| 문제 책 페이지 | 해설 책 페이지 | SET | 문제 번호 & 정답 | | | | | | |
|-------------|-------------|--------|------------|------|------|--|--|--|--|
| P.028 | P.034 | 고전시가 ❶ | 1. ㉓ | 2. ㉕ | 3. ㉑ | | | | |
| P.030 | P.037 | 고전시가 ❷ | 1. ㉔ | 2. ㉔ | 3. ㉕ | | | | |
| P.032 | P.041 | 고전시가 ❸ | 1. ㉑ | 2. ㉔ | 3. ㉕ | | | | |
| P.034 | P.045 | 고전시가 ❹ | 1. ㉑ | 2. ㉒ | 3. ㉓ | | | |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좌우에 당전(唐飜)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이편저편 화류교의(樵榴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화차중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만구하데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A]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담이나 하오리라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덤뻑 찍어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
 (중략)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
 삼 사신과 역관이며 마두와 노자(奴子)*까지
 은자며 비단 등속 차례로 받아 놓고
 삼배(三拜)*에 구고두(九叩頭)*로 사례하고 돌아오니
 상마연* 잔치한다 예부에서 지휘하기로
 삼 사신과 역관들이 예부로 나아가니
 대청 위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 놓은 모양
 [B] 메밀떡에 밀다식에 갈빔 머루 비자(櫃子) 등물(等物)*
 푸닥거리 상 벌이듯 좌우에 떠벌였다
 다 각기 한 상씩을 앞에다 받아 놓으니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삼배주를 마시는 듯 연파(宴罷)하고 일어서서
 뜰에 내려 복향하여 구고두 사례한 후
 관소로 돌아와서 회환(回還)* 날짜 택일하니

㉢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각 방은 분분하고
 흥정 외상 셈하려 주주리는 지저권다
 ㉣장계(狀啓)*를 발정(發程)*하여 선래 군관(先來軍官) 전송하고
 추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
 한 달 닷새 유하다가 시원하고 상연(爽然)하구나*
 천일방(天一方)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어
 풍진이 분운(紛紜)한데 집 소식이 돈절*하니
 사오 삭(朔)* 타국 객이 귀심(歸心)*이 살* 같구나
 승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

㉤올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서풍이 샅샅하여 가을빛이 쾌히 난다

- 홍순학, 「연행가」 -

- *구고두: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아홉 번 조아림.
- *상마연: 일을 마치고 떠나가는 외국 사신들을 위하여 베풀던 잔치.

| | |
|------------|----------------------------------------------------------------------------------------------------------------------------------------------------------------------------------|
| 화자와 대상의 관계 | 청나라에서 사신 업무를 본 후 조선으로 귀국하는 우리(조선의 사신) |
| 상황? | 청나라에 간 화자가 낯선 문물들을 봄 → 청나라 사신들과 필담으로 소통함 → 사신 업무를 마치고 황제가 내리는 상을 받음 → 황제가 잔치를 베풀었으나 음식이 비위에 맞지 않음 → 연회를 끝내고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꾸림 → 조선으로 돌아가며 추수가 한창임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낌 |

현대어 풀이

좌우에 탁자 놓아 많은 서책들을 쌓아 놓고
 자명종과 자명악은 스스로 소리를 내며
 좌우에 담요를 깔고 방석과 이불이며
 이쪽과 저쪽 나무 의자에 청의 사신과 우리 사신들이 서로 마주 걸터앉고

청의 사람 처음 인사하며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차를 마시는 중지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름하고 노르스름하고 향기가 가득한데
 저희들과 우리들이 서로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게 앉아 있으니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바라보다
 한자는 서로 같아 글로 대화를 하오리라
 벼루에 먹을 갈아 붓에 덤뻑 찍어
 종이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하는 글귀가 왔다 갔다
 속마음끼리 응하여 간곡한 정이 서로 통하는구나

(중략)

황제가 상을 주니 예부상서가 그 행사를 거행한다
 사신 세 명과 통역관과 말 관리자와 사내종들까지
 은자며 비단 등을 선물로 차례로 받아 놓고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며 황제에게 사례하고 돌아 오니

사신들을 위한 잔치한다 예부에서 지휘하기로
세 명의 사신과 통역관들이 예부로 나가니
대청 위에 진을 치고 상을 차려 놓은 모양
메밀떡에 밀다식에 곁밤 머루 비자나무 열매 등물
푸닥거리 상 벌이듯 푸짐하게 좌우에 차려 놓았다
각자 한 상씩 앞에다 받아 놓으니
비위에 맞지 않아 먹을 것이 전혀 없네
삼배주를 마시듯 음식을 먹고 연회를 끝내고 일어서서
뜰에 내려와 북쪽을 향해 아홉 번 절하고 사례한 후
관소로 돌아와서 돌아갈 날짜를 정하니
사람마다 짐을 싸느라 각 방은 정신없이 어수선하고
흥정하고 외상한 것을 계산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장계를 먼저 출발시켜 먼저 도착할 군관에게 전송하고
음력 칠월 십일일에 청나라를 떠나 조선을 향하니
한 달 닷새를 머물고 보니 시원하고 상쾌하구나
하늘 저쪽에 있는 우리 서울이 멀고 아득하다 갈 길이어
먼지와 바람이 날리는데 집 소식도 끊겼으니
4~5개월 동안 타국의 손님으로 지내면서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화살 같구나
송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
청나라로 올 때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서풍이 부는 소리 쌀쌀하여 가을빛이 시원스럽게 난다

이것만은 챙기자

- *간담: 속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황상: 현재 살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皇帝)를 이르는 말.
- *노자: 사내중.
- *삼배: 세 번 거듭 절함.
- *등물: 같은 종류의 물건.
- *회환: 갔다가 다시 돌아옴.
- *장계: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管下)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 또는 그런 문서.
- *발정: 길을 떠남.
- *상연하다: 매우 시원하고 상쾌하다.
- *돈절: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짐.
- *삭: 개월.
- *귀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 *살: 화살.

작품의 내용 이해 | 정답률 74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풀이

- ③ 객지에서 낯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회환할 때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화자는 청나라에서 '자명종과 자명약' 등 낯선 풍물을 본 일과 청나라 사신들과 필담을 나누고 황제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는 등 체면한 일에 대해 '정곡 상통하는구나',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등으로 정서를 드러낸다. 또한 '회환하여 떠날 때' '시원하고 상연하다'는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윗글에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서풍이 샅샅이 하여 가을빛이 쾌히 난다'는 자연에 대한 감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는 단순한 감상일 뿐,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장황한 서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② 학문과 관련된 사물을 나열하여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나 '당연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 덩뻑 찍어' 등에서 학문과 관련된 사물을 나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과는 상관이 없다.
- ④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공식적 행사인 '상마연'에 참석해서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뿐,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 ⑤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시하여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추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에서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천일방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어', '송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 등으로 보아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모두의 질문

• 1-⑥번

Q: 화자가 청나라를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이 나타나고 있으니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선지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 준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한 시점과 여정을 마무리한 시점이 일치해야 한다. 화자는 '추칠월 십일일'에 청나라에서 출발하면서 '천일방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 이어'라고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송문문'과 '통주'는 중국의 옛 지명이므로 이곳을 지나면서 '추수가 한창'인 광경을 본 것은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시어·시구의 의미 및 기능 파악 | 정답률 85

2.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 ㉡: 이편저편 화류교의(樺榴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 ㉢: 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각 방은 분분하고
- ㉣: 장계(狀啓)를 발정(發程)하여 선래 군관(先來軍官) 전승하고
- ㉤: 올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 정답풀이

- ⑤ ㉤: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곡식 추수가 한창'이라는 표현에서 계절감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청나라로 '올 적에 심은' 곡식을 추수할 만큼의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절로 울어 소리하며'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였지만 이를 통해 외국의 풍물에 대한 경험을 제시할 뿐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 ② ㉡: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편저편'에서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이는 청나라 사신들과 조선의 사신들이 마주 앉아 '처음 인사하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지, 청나라 사신들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③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이동을 앞둔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에 음성 상징어의 사용이나 여유로운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은 '떠들썩하고 뒤숭숭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분분하다'를 사용하여 회환을 앞두고 짐을 싸느라 정신이 없고 여수선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계획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장계를 발정하여'와 '선래 군관 전승하고'를 대구적 표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왕에게 소식을 전했다고 서술한 것일 뿐, 새로운 계획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기름잡기

- ③ **음성 상징어**: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참고] **의성어**: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태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
- ④ **대구**: 비슷한 어조나 구조를 가진 구절이나 문장 두 개를 짝지어 배치하는 표현 기법.

| 작품의 내용 이해 | 정답률 84

3. [A], [B]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정답풀이

- ① [A]에서 '간담을 상응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B]에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군.

[A]의 '간담을 상응하여'는 청나라 사신들과 필담을 나누며 속마음이 통했음을 표현한 것이지 청나라 사신들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또한 [B]에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 사례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이는 상마연을 열어 준 황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황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 오답풀이

- ② [A]에서 '우리들'은 '거기 사람'에게 인사로 차를 대접받고, [B]에서 '삼 사신' 일행은 '예부상서'를 통해 황상의 상을 하사받고 있음. [A]의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에서 '우리들이' '거기 사람'에게 인사로 차를 대접받았음을 알 수 있고, [B]의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에서 '삼 사신' 일행이 '예부상서'를 통해 황제의 상을 하사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A]에서 '필담'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을, [B]에서 '구고두'는 의례적 상황에서 감사를 표하는 공식적 예법을 나타내는군. [A]에서 '언어가 같지 않아 /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덩덤하니 얹'아 있던 청나라 사신들과 조선의 사신들이 '필담'을 통해 '간담을 상응하여 정국 상통'했다고 하였으므로, '필담'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B]에서 황상이 준 상을 받은 다음과 '상마연'이 끝난 다음 화자가 '구고두'로 '사례'하는 것으로 보아, '구고두'는 의례적 상황에서 감사를 표하는 공식적 예법임을 알 수 있다.
- ④ [A]에서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난처한 상황이 해소되고 있음을, [B]에서 '비위가 뒤집혀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군. [A]의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서로 묻고 대답하는 글귀가 왔다 갔다 하며 필담을 나누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언어가 같지 않아' 난처했던 상황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낸다. 또한 [B]의 '비위가 뒤집혀서'에서는 잔칫상을 받았지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이 드러난다.
- ⑤ [A]의 '귀머거리 병어린 듯'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B]의 '메밀떡에 밀다식에 곁밤' 등은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상황을 알려 주는군. [A]에서는 '언어가 같지 않아 /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덩덤하니 얹'아 있던 청나라 사신들과 조선의 사신들의 모습을 '귀머거리 병어린 듯'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B]의 '메밀떡에 밀다식에 곁밤' 등은 잔칫상에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상황을 알려 준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파(陽坡)*의 풀이 기니 봄빛이 느껴 있다
 소원(小園) 도화(桃花)*는 밤비에 다 피거다
 아히야 쇼 도히 머져 논밭 갈게 햏야라 <제2수>

㉡잔화(殘花) 다 딛 후에 녹음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닳둑의 소리로다
 ㉢아히야 계면도 불러라 긴 조롭 씨오자 <제3수>

동리(東籬)에 국화(菊花) 피니 중양(重陽)이 거에로다
 자채(自蔡)*로 비즌 술이 햏마 아니 니것느냐
 ㉣아히야 자해(紫蟹)* 황계(黃鷄)로 안주 장만햏야라 <제6수>

북풍이 노피 부니 압 피헤 눈이 딛다
 ㉤모침(茅簷)* 촌 빗치 석양이 거에로다
 아히야 두죽(豆粥) 니것느냐 먹고 자라 햏로라 <제7수>

이바 아히돌아 새히 온다 즐겨 마라
 [A] 현수훈* 세월이 소년(少年)* 아사 가느니라
 우리도 새히 즐겨 햏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9수>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 *양파: 별이 잘 드는 언덕.
- *자채: 울벼. 철 이르게 익은 벼.
- *자해: 꽃게.
- *모침: 초가지붕의 처마.
- *소년: 젊은 나이.

현대어 풀이

별이 잘 드는 언덕에 풀이 기니 봄빛이 늦게까지 비친다
 작은 정원의 복숭아꽃은 밤비에 다 피었구나
 아이야 쇼 잘 먹여 논과 밭을 갈게 햏야라 <제2수>

남아 있는 꽃도 다 딛 후에 나무와 수풀의 푸름이 깊어 간다
 대낮의 외따로 떨어진 마을에 닳뒹 우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이야 계면조의 노래를 불려라 긴 조움을 깨우자 <제3수>

동쪽 울타리에 국화가 피니 중양절이 거의 다 되었구나
 울벼(일찍 익은 벼)로 빚은 술이 설마 아니 익었느냐
 아이야 꽃게와 누런 닭으로 안주를 장만햏야라 <제6수>

북풍이 높이 부니 앞산에 눈이 내린다
 초가지붕 처마의 찬 빗을 보니 저녁 무렵이로구나
 아이야 콩죽 익었느냐 먹고 자려고 한다 <제7수>

여봐라 아이들이 새해가 온다고 즐거워하지 마라
 야단스러운 세월이 젊은 시절을 빼앗아 가느니라
 우리도 새해를 즐거워하다가 이렇게 노인이 되었노라 <제9수>

이것만은 챙기자

- *도화: 복숭아꽃. 봄에 주로 피며 백색 혹은 옅은 붉은색으로 핏.
- *고촌: 외따로 떨어져 있는 마을.
- *현수훈다: 야단스럽다. 신비롭다.

| | |
|---------------|-----------------------------------------------------------------------------------------------------------------------------------------|
| 화자와 대상의 관계 |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경치를 즐기며 세월이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우리 |
| 상황? | 풀이 자라고 복숭아꽃이 피는 봄의 경치를 즐기 → 꽃이 지고 녹음이 깊어 가는 여름의 경치를 즐기 → 가을이 되어 익은 술과 안주를 즐기려 함 → 겨울의 눈 내린 풍경을 즐기 → 새해가 되자 세월이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함 |

| 시어·시구의 의미 및 기능 파악 | 정답률 89

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양파(陽坡)의 풀이 기니 봄빛치 느껴 있다
- ㉡: 잔화(殘花) 다 딛 후에 녹음이 기퍼 간다
- ㉢: 아히야 계면도 불러라 긴 조름 씨오자
- ㉣: 아히야 자해(紫蟹) 황계(黃鷄)로 안주 장만후야라
- ㉤: 모침(茅簷) 촌 빗치 석양이 거에로다

✔ 정답풀이

④ ㉣: 미각을 돋우는 소재들을 통해 화자의 흥취가 드러난다.

〈제6수〉에서 화자는 가을이 되자 '자재'로 빚은 술을 찾으며 아이에게 '자해'(꽃게), '황계'(누런 닭)를 가지고 안주를 마련하라고 한다. 따라서 '자해'와 '황계'는 미각을 돋우는 소재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화자의 흥취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 화자가 지향했던 초월적인 삶의 세계가 회고된다.
㉠은 봄날의 경치를 그린 구절로, 초월적인 삶의 세계와는 무관하다. 또한 윗글에서 화자가 초월적 삶의 세계를 지향했던 것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초월적 삶의 세계를 회고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② ㉡: 꽃이 떨어진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제시된다.
㉡은 꽃이 진 후 녹음이 깊어 가는 여름의 경치를 표현한 구절로, 화자가 꽃이 떨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 시름을 일시적으로나마 잊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표출된다.
〈제3수〉에서 화자의 시름은 드러나지 않으며, 아이에게 계면초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들으며 졸음을 깨우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집약되어 나타난다.
㉤은 초가집의 처마에 석양이 지는 모습을 표현한 구절로,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윗글에서 화자는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기름잡기

① 초월적: 어떠한 한계나 표준, 이해나 자연 따위를 뛰어넘거나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 작품의 내용 이해 | 정답률 74

2. 〈보기〉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늘그니 늘그니를 만나니 반가고 즐겁고야
 반가고 즐거오니 늘근 줄을 모롤로다
 진실노 늘근 줄 모루거니 미일 만나 즐기리라
 - 김득연, 「산중잡곡(山中雜曲)」 제49수 -

보기 분석

〈현대어 풀이〉
 늙은이가 늙은이를 만나니 반갑고 즐겁구나
 반갑고 즐거우니 늙은 줄을 모르겠구나
 진실로 늙은 줄을 모르겠으니 매일 만나 즐기리라

✔ 정답풀이

④ [A]에서는 현재의 자신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 대한 훈계가, 〈보기〉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상대를 만난 기쁨이 드러난다.

[A]에서 화자는 아이들에게 새해가 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의 늙음을 탄식하고 있으므로, 자신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 대한 훈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기〉의 화자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늙은이를 만나 반갑고 즐겁다고 하였으므로, 같은 처지에 있는 상대를 만난 기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A]와 〈보기〉는 모두 젊음과 늙음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표출하고 있다.
[A]는 '소년'과 '백발', 즉 젊음과 늙음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세월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으나, 〈보기〉에서는 젊음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 ② [A]와 〈보기〉는 모두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자신과 같은 늙은이를 만난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의 화자는 늙음을 탄식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현재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A]와 〈보기〉는 모두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A]에서 '험스흔 세월이 소년 아사' 간다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세월이 빠르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지는 않았다. 〈보기〉에는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는 인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A]에서는 과거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태도가, <보기>에서는 상대를 통해 현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태도가 드러난다.
[A]에서는 아이들에게 새해가 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을 뿐, 과거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보기>의 화자는 같은 처지의 늙은이를 만나 즐거워하고 있을 뿐, 상대를 통해 현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정답률 90

3.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사시가(四時歌)는 사계절의 추이에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는 시가를 일컫는다. 사시가에서는 계절에 관한 시상이 드러나는 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동일한 어휘나 유사한 표현을 연마다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시어 및 구절을 먼저 제시한 후 화자의 반응이나 정취를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품에 따라서는 일상의 풍경을 도입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상살이의 모습을 조명하거나,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사를 대비하기도 한다.

보기 분석

- 사시가: 사계절의 변화를 드러내며 시상을 전개하는 시가
 - 동일한 어휘나 유사한 표현을 연마다 반복
 - 일반적으로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시어 및 구절 먼저 제시
 - 그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나 정취 덧붙임(선경후정)
 - 일상의 풍경을 도입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상살이의 모습 조명
 -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사 대비

정답풀이

- ⑤ 각 연에서는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그러한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을 대비하고 있군.

<보기>에서 사시가는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사를 대비'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윗글에서는 사계절의 변화 과정을 그린 각 연을 통해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절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자연의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을 자연과 대비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 ① 사계절의 추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시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군.
<보기>에서 '사시가는 사계절의 추이에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는 시가를 일컫는다.'라고 하였다. 윗글에서 <제2수>는 봄, <제3수>는 여름, <제6수>는 가을, <제7수>는 겨울의 경치를 그리고 있으므로, 이는 사시가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